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해서

스티븐 I. 레빈(몬타나 대학)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마이클 헛트는, 중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비판자들의 이상주의적 입장과 닉슨 식 현실주의적 타협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근본적으로 모순적인’ 대중국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을 혹평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과 쇠퇴하는 미국 간 상대적 권력 지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그는 미국인들이 미국의 글로벌 지배의 시대는 끝났음을 깨닫고,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라는 개념에 결부되어 온 섭리 또는 운명에 대한 신화적인 언설”을 내던지라고 충고한다.

그의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쟁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중국의 도전의 본질; (2)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 (3) 미국의 대중국 정책.

헛트가 바라보는 1949년 이후의 중국은 강하고 통일적이며 자신만만하고 성공적인 국가다. 중국은 세계 속에서 그들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열강으로 부상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민족주의적 인민의 지지를 향유하고 있다. 모든 능숙한 캐리커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묘사 역시 진실의 일부만을 제시할 뿐이다. 사실 중화인민

공화국 역사의 절반에 달하는 시기, 그들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제도적으로 저발전 됐으며, 철인왕으로 잘못 알려진 전제군주 모택동의 변덕에 휘둘리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GDP의 놀라운 성장은 중국 인민들, 특히 농민들의 강요된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국가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모택동이 죽었을 때, 중국은 허약하고 저개발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덩소평의 개혁은 마오이즘을 거부했다. 덩소평의 수출지향전략은 일본, 한국, 대만 등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그들은 모두 워싱턴이 성공적 발전의 사례로 칭송한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현대의 중국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당-국가 체제는 강하게 보이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 미약한 사법체계, 검열과 정보통제에 대한 도전, 티베트와 신강 등 내부 식민지의 저항 등의 많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헛트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의 가능성을 슬며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우리를 늘 놀라게 했다. 중국 민족의 자긍심은 공산당을 넘어서며 그것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위대함을 구현할 자기 보증자로서 그 자신의 영속적인 지배만을 추구할 뿐이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되는 글로벌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헛트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비록 중국이 스스로 글로벌 체제를 구축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워싱턴이 설계한 체제를 수용하고 그로부터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체제의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에 참여해 왔다. 그런데 중국의 외교정책에는 모순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중국의 세계 속 지위에 대해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보다 헛트 교수가 더 명확하고 일관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헛트가 제시한 것보다 더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수의 중국인들이 오

랫동안 미국을 단지 또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로 여겨 왔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역동성, 기술적 창의성, 자유, 번영 등을 보유한 미국을 흠모해 왔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모순적 성격에 대한 헌트의 비판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책의 지배적 경향은 타협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고무하고 촉진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시장의 개방은 많은 사례들 중의 하나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중국 비판가들은, 권위주의 체제 그 자체의 정당성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어떠한 경우라도, 민주적인 미국 정체 내의 다원적인 이해관계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다면성을 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순수한 현실주의의 기초 위에 추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이란 것은 워싱턴 정가의 환상일 뿐이다. 헌트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원칙과 가치들에 대한 호소는 중국의 권위주의 지배자들을 자극할 뿐이며, 단지 미국인들의 자아도취를 만족시킬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들은, 세계 속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에 대해 미국인들의 자화상을 형성해 온 “섭리 또는 운명에 대한 신화적인 언술”과는 다른 것이다. 앞으로 도래할 다극 세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다극) 세계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패권국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Responding to the China Challenge

Steven I. Levine(University of Montana)

In “Responding to China’s Challenge”, Michael Hunt castigates U.S. policymakers for pursuing a “fundamentally contradictory” policy toward China that wobbles between Nixonian realpolitik accommodation, and the idealist position of critics who view the PRC as illegitimate. Underlining the shift in the relative power positions of a rising China and a declining United States, he counsels Americans to recognize that the era of America’s global dominance is over and to jettison the “mystical hocus-pocus about providence and destiny that has come to be associated with the idea of the American Century.”

While agreeing with the overall argument I would like to focus on three problematic assertions, namely, (1) the nature of the China challenge; (2) China’s response to the U.S.; and (3) U.S. China policy.

Hunt’s post-1949 China is a strong, unified, confident and successful state, possessing a clear conception of its place in the world, and enjoying the support of a nationalistic people proud of China’s ascent to global power status. Like all skillful caricatures, this captures part of the truth.

Yet for fully half of the history of the PRC, Chinese politics was chaotic, institutionally underdeveloped, and subject to the fatal whims of Mao Zedong, an arbitrary despot many mistook for a philosopher-king. The impressive growth of China's GDP during these decades bolstered state power through the coerced sacrifices of the Chinese people, particularly the majority rural population. Yet, at Mao's death China remained weak and underdeveloped. Deng Xiaoping's reforms repudiated Maoism. His export-oriented directed strategy was modeled on that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ll American allies that Washington lauded as examples of successful development.

Contemporary China is rife with contradictions. The party-state appears strong but is beset by vast problems of official corrup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social inequality, a weak system of justice, challenges to its system of censorship and information control, and discontent from within its internal colonies (Tibet and Xinjiang). Hunt implicitly discounts the possibility of intra-party or external challenges to the CCP whose rule he equates with the rise of China. Yet, some skepticism is in order. China has a way of surprising us. Chinese national pride is larger than and not dependent upon the communist party, which now stands for little more than its own perpetual rule as the self-appointed guarantor of China's greatness.

Hunt is again partially correct in asserting that China's rise "poses a profound challenge to a U.S.-defined and dominated global regime." Yet, though China did not construct the global system, it largely accepts the system that Washington designed, and has benefited immensely from it. Moreover, it has taken its place on the Board of Directors that oversees its

operation. Yet, there are contradictory elements in Chinese foreign policy. I suspect that Professor Hunt may have a clearer and more consistent conception of China's place in the world than does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Well-educated Chinese have a more diverse response to the United States than Hunt allows. While many have long viewed the United States as just another imperial Western power, many others have admired the United States for its dynamism,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freedoms, and prosperity.

Finally, Hunt's criticism of the contradictory nature of U.S. policy to China is misdirected. Since the 1970s, the dominant strand of U.S. policy has been not merely to accommodate but to encourage and facilitate China's development. The opening of the U.S. market to Chinese goods is but one example among many. Most American criticism of China focuses on Chinese policies, not on the legitimacy of the authoritarian regime itself. In any case, the plurality of interests in a democratic American polity virtually necessitate that U.S. policy toward China be multi-stranded. An abstractly rational and consistent policy based on pure *realpolitik*-or more likely the presumption by policymakers of *realpolitik*-is a Washington insider's fantasy. The universal principles an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invocation of which irritates China's authoritarian rulers, and which Hunt dismisses as mere American self-indulgence, are not the same as the "mystical hocus-pocus about providence and destiny" that informed America's self-conception of its supposedly unique status in the world. They are rather the valu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share those values, can bring to the table in the

emerging multipolar world in which neither America nor China will be the hegemonic power.